

베드로전서 2:1 ~ 10
“아름다운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함께’라는 말을 희랍어로 ‘프로스’라고 합니다. ‘프로스’ 상태는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영원히 함께하시고 소통하시고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성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삼위니까 성경에 복수로 표현돼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은 세상에 은과 금 같은 세상에 없어질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조자세요. 그 전능한 분도 더 이상은 우리에게 희생할 수 없는 최고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2장에 가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는 이 모든 말씀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창세전부터 준비된 예비된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구원이요, 영원히 있는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려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요. 땅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멸망 받을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마음먹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다르다. 구별되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옛날에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안 믿을 때는 가만히 있나 보자 이랬지만 이제는 주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겨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너무 핍박받았지만 형제들아, 그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들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게 사랑, 화평, 기쁜 마음, 온유, 충성 등의 변화가 되었으니까 그랬어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갇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갇난아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게 되니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사야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재미있어요. 신약에 있던 게 구약에 있고 구약에 신약이 있고 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어요.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어요. 사라에게서 낳은 아이는 이삭이죠. 약삭의 자녀입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먼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이삭은 약삭의 자녀, 이스마엘은 욱신의 자녀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욱신의 자녀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을 때에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린 아이 같이 순전하게 말씀을 꿀 송이 삼아요. 지금 건강한 신앙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자꾸 꿀송이 같이 달고 맛있어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은혜 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고 은혜 되고 사모하고 갇난 어른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복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지만 복된 시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요즘은 교회도 많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성도들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많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단들이 많아요.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소생되는데 왜 설교 듣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에 빛이 못 될까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 죄악에 빠져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적당한 교훈으로 들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유럽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영국 종교 개혁에 앞장서서 많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중세 문화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유럽은 동성연애로 타락하고 망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1점이라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순절한 제사를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며 죄에서 해방, 사탄에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도 없고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화락과 기쁨만 있는 나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이, 제사장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실로 구원받았습니다. 최고의 은혜와 복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알고 느끼는 성도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 인자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마음과 말과 행위를 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표현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기초석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출애굽 할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돌의 특징은 변하지 않아요 반석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의 돌 신령한 돌을 믿는 자는 신령한 돌이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고, 이건 모퉁이에 딱 있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제사드리죠. 아무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건축자들이 모퉁이 될 가장 귀한 신령한 교회 같이 지어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연합하여 계셔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양면성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이 돼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그 위에 깨지면 박살나는 거죠. 신령한 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영생을 얻기도 하고 거부하면 심판에 이릅니다.

8절 또한 부딪치는 돌과 결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택정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택하신 바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죄 짓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가고 불행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고 예배되고 준비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이 초청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천하보다 귀한데 많은 영혼이 와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건 우리 교회도 너무 복된 일이고, 여기에 쓰임 받는 교회도 복된 일이고, 거기에 쓰임 받는 성도들도 복된 일이니 다음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도 복되고 참 기쁜 주일일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http://www.onnurimission.org>